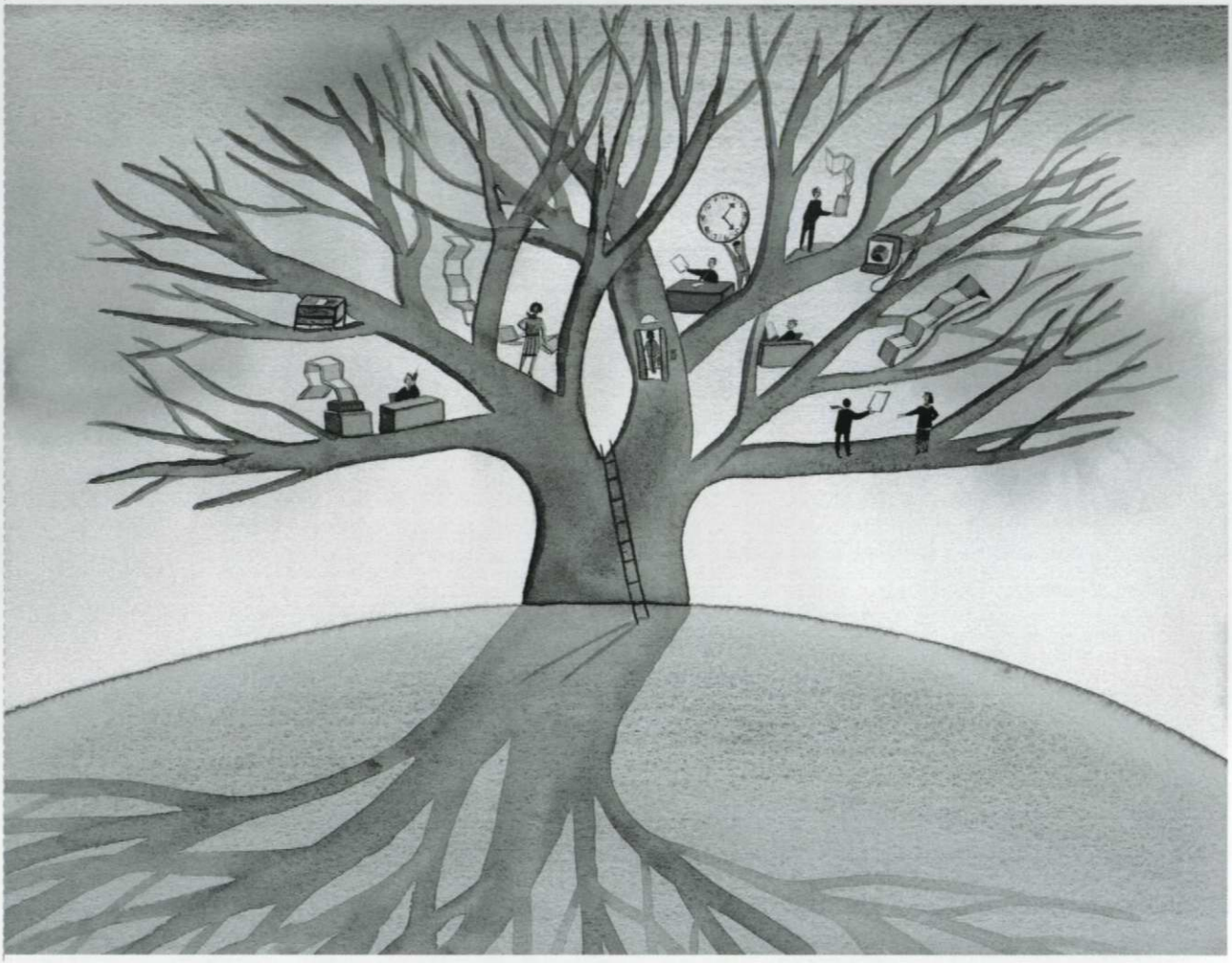
# 유행처럼 번지는 바이러스마케팅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 장점 작용

글 / 백승오



과거부터 마케팅기법은 유행처럼 번지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생기기전에 마케팅 기법은 기업에 있어서 큰 자산이었다(물론 현재도 그러하다). 여성이 주고객인 화장품 회사나 의류회사는 해마다 새로운 마케팅에 기반한 다양한 판촉활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동종기업의 경우 경쟁사에서 성공한 마케팅기법을 도입하는 예가 흔했다. 마케팅기법은 특허가 없기 때문일까? 사실 마케터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종 마케팅을 도입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한순간에 도둑맞는 느낌일 것이다.

어차피 마케팅기법은 오픈되기 마련이니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운명일까? 아무튼 마케팅은 유행을 타는 것이 현실이다.

## 바이러스마케팅의 유행

최근 들어 바이러스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바이러스마케팅이란 컴퓨터 바이러스에서 유래했다. 즉,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PC에서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는 최근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마케팅은 광고를 본 사람이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사의 제품광고를 본 사람들에게 제삼자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피라미드식 마케팅'이 될 것이다. 피라미드식 판매가 제품 구매자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구매자로 추천하거나 유인하는 것처럼(전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기업이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다.

바이러스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는 데에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적은 비용 큰 효과

바이러스 마케팅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업들이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메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광고 메일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엽기토끼', '졸라맨', '힘맨', '졸라맨', '지하철도999', '형님' 등 시리즈가 바이러스마케팅에 '미끼'로 이용되는 애니메이션이다.

이메일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이런 애니메이션이 첨부된 메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메일을 받는 사람은 광고가 첨부된 메일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교적 거부감을 적게 느끼게 된다. 물론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측에서 보면 광고도 하고 고객들에게 스팸메일이라는 거부감도 적어서 여러 면에서 장점이다. 또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메일을 광고가 첨가된 메일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힘들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게되는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바이러스마케팅의 매력이다.

물론 바이러스마케팅은 오프라인에도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제품가격을 깎아준다든가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미끼'로 이용된다.

##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마케팅

바이러스마케팅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포르노 사이트들의 마케팅 기법인데 이들은 사이트를 운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한번 접속하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접속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을 쓰고 있다.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을 한 사용자들도 있을 것이다.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바이러스마케팅 기법을 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방법인데 그야말로 '바이러스마케팅'이다. 포르노 사이트 운영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사의 사이트로 유도하게 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PC는 바이러스 유포사의 사이트로 자동 접속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 PC의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반강제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들이 거부감 느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바이러스마케팅의 범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은 포르노 사이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예가 될 것이다. 아무튼 바이러스마케팅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마케팅'에 맞서 '백신 마케팅'도 등장하고 있다. '백신 마케팅'은 바이러스e메일에 각종 바이러스 백신과 동영상 광고를 함께 담아 보내는 기업으로 배달된 백신을 클릭하면 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데 백신으로 PC를 점검하는 동안 광고를 보게되며 이러한 경우 광고 클릭율이 일반 배너광고의 클릭율(1%)을 훨씬 웃도는 40%대의 클릭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바이러스마케팅의 발전으로 관련 솔루션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바이러스마케팅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신조류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